

# 李賀 詩의 가을 이미지 연구\*

姜昌洙\*\*

---

◁ 목 차 ▷

---

- I. 緒言
  - II. 本論
    - 1. 懷才不遇의 계절
    - 2. 가을과 전쟁
    - 3. 가을날의 음악
  - III. 結語
- 

## I. 緒言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지나간다. 유한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시간의 흐름은 불가역적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계절이라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시기적 구분과 함께 흐르는데, 그 계절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다.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네 개의 독특하면서도 각각의 개성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의 흐름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의 감정도 그 네 개의 특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계절은 무엇일까? 각각의 계절마다 특징이 있어서 우리의 감정도 그 특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앞날에 대한 기대에 충만해 있을 수 있다. 만물이 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여름, 수확의 계절로 불리는 가을,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운 겨울. 물론 계절은 결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희망이 충만해 보이는 봄도 어떤 이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sup>1)</sup> 이처럼 가을이라는 계절 또한 가장 극단적인

---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중어전공 교수

두 가지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우리에게 다가옴으로써 그 어느 계절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한다.

가을의 첫 번째 모습은 수확이다. 봄부터 여름을 거치며 힘든 노동을 통하여 드디어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에 모든 것이 풍요롭다. 결실, 수확, 풍요 등이 바로 그 가을의 모습이다. 그러나 가을은 그 한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쇠락의 계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누렇게 익은 논밭의 곡식에서 결실과 수확과 풍요를 느꼈다면, 추수가 끝난 텅 빈 벌판에서 쇠락과 허무함, 쓸쓸함, 그리고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전하는 李賀의 시 241수<sup>2)</sup> 중 모두 68수의 시, 81개의 詩句에서 가을을 의미하는 '秋'자가 등장한다. 본고에서는 그 시들을 중심으로 하여, 李賀의 시에 나타난 가을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작업은 가을의 다양한 모습과 그에 따른 시인의 감정과 노래를 통하여 시인의 시적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本論

### 1. 懷才不遇의 계절

재주를 품고 있으나, 그 재주를 펼칠 때를 만나지 못하는 것, 나아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懷才不遇'라고 한다. 科擧가 입신양명의 출발이었던 고대의 중국에서 과거에 낙방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그 많은 지식인, 시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과거에 급제하고도, 벼슬길에 나아가고도 자신의 뜻을 펼

---

1) 「꽃피는 봄 3~5월, 사망·자살 많았다」 《중앙일보》 2016년 9월 27일자 기사

2) 葉葱奇가 校注한 《李賀詩集》(台北, 里仁書局, 民國 71)을 기준으로 한 숫자임. 淸의 王琦가 注한 《李長吉歌詩彙解》(台北, 世界書局, 民國 71)에는 〈靜女春嚳曲〉·〈少年樂〉 두 수가 '別書採出'이라 하며 〈補遺〉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함. 각 시 앞에 붙인 번호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그 숫자 역시 葉葱奇 校注本の 順序이다. 각 시구의 번호도 편의를 위해 붙인 것이다.

치지 못하고 스러진 수많은 인재들은 그 슬픔과 울분, 그리고 분노를 어떻게 펼쳤을까. 하물며 벼슬길에 오르는 유일한 길인 과거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게다가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避諱'라는 악습으로 인하여 원천봉쇄 되어버린 것이었다면 그 슬픔과 울분을 어떻게 노래했을까.

懷才不遇는 고대 중국에서 詩文의 보편적인 주제의 하나이다. 杜甫·李白·孟浩然 등 수많은 시인들이 회재불우를 노래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 누구도 李賀보다 처절한 회재불우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없다. 그의 출신이, 그의 생애가, 그의 노래가 그것을 증명한다. 가을은 바로 그 회재불우의 노래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었다. 다음 시는 가을을 노래한 李賀의 대표적 가을 시이다.

039<秋來>	가을 오다
01桐風驚心壯士苦	오동잎 바람에 마음 놀란 장사 괴롭고
02衰燈絡緯啼寒素	희미한 등불 아래 배짱이 차갑게 운다
03誰看青簡一編書	누구일까 이 푸른 죽간의 글 읽어
04不遺花蟲粉空蠹	화충이 좀 먹도록 놔두지 않을 이는
05思牽今夜腸應直	시름 맺힌 이 밤 창자는 곧추서고
06雨冷香魂弔書客	찬 빗속에 향기로운 영혼들이 이 글쟁이를 위로한다
07秋墳給唱鮑家詩	가을 무덤속의 귀신은 포조의 시를 읊는데
08恨血千年土中碧	한 맺힌 피는 천년 세월 땅속에서도 푸르리라

이 시는 작자가 24세 때인 憲宗 元和 8년(813년) 병으로 辭職하고 고향인 昌谷으로 돌아와 머물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첫 구의 '桐風' 즉 오동잎에 부는 바람은 '秋風'을 의미한다. 추풍에 오동잎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의 빠른 흐름과 그 속에 내재된 근심을 함축하고 있다. 마음이 놀란 이유는 시간의 빠른 흐름 때문인 것이다. 제 2구의 '絡緯'는 배짱이다. 배짱이의 울음소리는 깊은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啼寒素'는 벌레의 울음을 배 째는 소리에 비유하여 한 말이다. '寒素'에는 貧寒의 뜻도 있기 때문에 벌레가 시인의

3) 以下 各 詩의 著作 時期는 朱自清, <李賀年譜>(台北, 《清華學報》, 1933), 楊文雄, 《李賀詩研究》(台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69) 홍상훈, 《시귀의 노래》(서울, 명문당, 2007) 등을 참고로 한 것이다.

빈한함을 동정하여 운다고 할 수도 있으나, 취하지 않는다. 이 두 구는 계절의 변화를 식물과 동물을 등장시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제 3, 4구에서는 자신이 피를 토하며 부른 노래가 아무에게도 읽혀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제 5구에서 '腸應直' 즉 '창자가 곧추선다'는 것은 고통의 극심함을 의미한다. 고대의 사람들은 창자를 감정이 있는 기관이라고 여겨 '愁腸'·'心腸'·'回腸' 등으로 불렀다.<sup>4)</sup> 굽어있는 창자가 곧게 펴지는 고통은 작시의 고통보다 훨씬 더 한 것이다. 제 6구 '香魂' 즉 '향기로 온 영혼'은 이미 죽은 선배 詩人才士의 亡魂이다. 그들 또한 자신과 같은 '書客'이다. 동병상련의 존재인 것이다. 제 7구 '鮑家'는 南朝 梁의 시인 鮑照를 가리킨다. 무덤을 노래한 鮑照의 〈代蒿里行〉이란 시는 死者의 입을 빌어 삶에 대한 미련과 죽음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시로, 그 풍격이 李賀와 아주 비슷하다. 여기서의 작가가 좋아하는 시인의 대표적 인물로 언급된 것이다. '秋墳' 즉 '가을 무덤속의 귀신'은 시인 자신을 가리킨다. 제 8구는 周代 때 蕞弘이란 인물의 고사<sup>5)</sup>를 시인 자신의 맹서로 변화시켜 사용한 것이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蕞弘의 원한은 과거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는 시인의 원한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아닐까. 詩鬼가 되어 한을 품고 저세상으로 간다면 그 원한은 천년을 두고 없애기 어려운 것이라는 표현이다. 포조에 의탁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불우함을 노래한 것이다. 가을 '秋'는 '憂愁'의 '愁'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가을이 옴은 근심이 온 것이며, 슬픔이 온 것이다. 그 근심과 슬픔은 바로 회재불우인 것이다.

156〈開愁歌〉花下作	시름을 풀자-꽃 아래에서
01秋風吹地百草乾	가을바람 대지에 불어 온갖 풀 시들고
02華容碧影生晚寒	가을꽃 저녁 되니 추위에 떠난다
03我當二十不得意	내 나이 스물에 뜻 얻지 못하니
04一心愁謝如枯蘭	마음 온통 수심에 시든 것이 메마른 난초 같다
05衣如飛鵝馬如狗	의복은 헤지고 말은 개처럼 여위어
06臨岐擊劍生銅吼	갈림길에서 칼 두드리니 구리소리 울부짖는다
07旗亭下馬解秋衣	주루에서 멈춰 말 내려 가을 옷 벗어들고
08請貰宜陽一壺酒	그 옷 저당 잡혀 의양술 한 병과 바꾸었다

4) 王友勝·李德輝 校註《李賀集》(嶽麓書社, 中國 長沙, 2003), 65쪽.

5) 홍상훈 譯註, 《시귀의 노래》(명문당, 서울, 2007) 89쪽; 王友勝·李德輝 校註, 上揭書 65쪽.

09壺中喚天雲不開	술 취해 하늘 보고 외쳐보지만 구름 아니 걷히고
10白晝萬里間淒迷	백주 대낮이건만 넓은 세상은 쓸쓸하고 적막할 뿐
11主人勸我養心骨	술집 주인 권하길, 마음과 기골 길러
12莫受俗物相填壓	속된 일에 얽매여 마음 상하지 말라 한다

이 시는 작자가 21세 때인 憲宗 元和 5년(810년)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고 고향인 昌谷으로 돌아와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開愁'란 '시름이나 근심을 풀다'라는 뜻이다. 시인의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懷才不遇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는 '花下作(꽃 아래에서 짓다)'이라는 原注가 달려있는데, 어떤 판본에는 '花'가 '華'로 되어있기도 한데, 그 경우의 '華'를 西岳인 華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를 과거에 응시조차 못하고, 長安을 떠나 고향인 昌谷에서 지었다고 추정할 경우, '花'를 '華'로 보고, 長安 부근에 소재한 華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첫 구와 둘째 구는 눈앞의 경물을 노래했다. '華容'은 꽃을, '碧影'은 꽃 그림자를 말한다. 馬櫻花나 木芙蓉은 모두 가을에 꽃이 핀다.<sup>6)</sup> 원주의 '花下作'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시점, '秋風'이 부는 계절 가을은 더 이상 수확의 계절이 아니다. 온갖 풀이 시드는 쇠락의 시기인 것이다. 게다가 한기가 엄습하는 저녁, 길가의 꽃조차 수심에 가득 찬 듯하다. 시인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외계의 사물과 융합시켜 노래하면서 제 3, 4구의 감정을 이끈다. 제 3, 4구는 자신의 정서를 노래한 것이다. 시인의 감정은 온통 수심으로 가득하다. 李賀는 20세인 元和 4년(809년) 河南府試를 거쳐 長安으로 가서 禮部 시험에 응시하지만, 부친의 함자 '罍'字가 進士의 '進'字와 발음이 같다는 경쟁자들의 비방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조차 못한다. 난초란 꽃은 원래 시인의 고결한 마음을 상징하는 꽃이지만, 메마른 난초는 바로 응시조차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다. 제 5구에서 8구는 3, 4구의 감정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그 모습이 그림을 보듯 생생하다. 제 5구의 '衣如飛鷄'은 메추라기 털처럼 누덕누덕 께맨 옷을 말한다. 빈궁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제 6구의 '臨岐擊劍' 즉 갈림길에서 칼을 두드리는 것은 칼의 본래 용도인 베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풀기 위함이다. 칼은 본래 울

6) 葉葱奇, 《李賀詩集》(里仁書局, 台北, 民國 71), 211쪽.

부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울부짓는다(吼)’고 표현함으로써 맹수처럼 울부짓고 싶은 시인의 분노를 상징한다. 제 7구의 ‘旗亭’은 酒樓를 말한다. 대개 주루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집 앞에 깃발을 걸어놓았다고 한다. 제 8구의 ‘宜陽’은 지금의 河南省 宜陽縣으로 당시의 이름은 福昌이었다. 시인의 고향이다. 隋代에 의양이었다가 당대에 다시 복창으로 바뀌었기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극에 달한 슬픔과 분노를 어떻게 풀 것인가? 유일한 방법은 술이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옷을 팔거나 말기고 술을 구할 수밖에 없다. 시인의 곤궁한 상황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고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일까? 술에 취해 하늘을 향해 소리쳐보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다. 해는 구름에 가려있어 사방이 온통 어둡고 쓸쓸하고 적막하다. 조금의 빛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시인은 절망하고 그 고통은 극에 달한다. 그나마 마지막 두 구에서는 술집 주인의 말을 빌려 제목인 ‘開愁’ 즉 ‘시름을 풀다’라는 의욕을 나타낸다. 시인은 아직은 젊디젊은 약관의 나이이기 때문이다. ‘填歷’는 ‘밀어내다’·‘배재하다’는 뜻으로, 여기서 ‘속된 일에 얽매이다’라는 것은 避諱의 악습에 가로막혀 시험조차 치지 못하는 일을 가리킨다. 가을이라는 계절, 눈앞의 사물을 빌어 자신의 감정을 피를 토하듯 노래하는 시인의 아픔은 회재불우 그 자체인 것이다.

139〈崇義里滯雨〉	승의리의 가을장마
01落寞誰家子	외로운 그대 누구 집 자제인지
02來感長安秋	장안의 가을을 슬퍼하고 있는가
03壯年抱羈恨	젊은 나이에 떠도는 신하의 한을 품고
04夢泣生白頭	꿈속에서 울다보니 생겨버린 백발
05瘦馬秣敗草	여윈 말에게 시든 풀 먹이고
06雨沫飄寒溝	빗방울처럼 차가운 도랑에 뿌려지는 신세
07南宮古簾暗	남궁의 낡은 발엔 어둠이 내려앉고
08濕景傳簫籥	비에 젖은 풍경 속에 야경 소리 전해온다
09家山遠千里	고향산천은 머나먼 천리 길인데
10雲脚天東頭	구름은 하늘 동쪽에 걸려있다
11憂眠枕劍匣	시름에 칼집 베고 잠이 드니
12客帳夢封侯	객방 꿈속에서 제후로 봉해진다

이 시는 작자가 22세 때인 憲宗 元和 6년(811년) 長安에서 처음으로 奉禮郎 職을 맡았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崇義里'는 宋敏求의 《長安志》에 따르면 장안성 내의 朱雀大街의 두 번째 길로, 길에는 9개의 坊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라고 한다.<sup>7)</sup> 시인은 고향에서 長安으로 올라와 그곳에 머물렀다. '滯雨'는 오랫동안 내리는 비로 장맛비이다. 요새말로 가을장마라고나 할까.

첫 구의 '落寔'은 '영락하다'·'적막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시인 자신을 가리킨다. 이어 시인은 외롭고 쓸쓸한 가을을 느끼는데, 그 장소는 바로 長安이다. 長安이 아니었다면 또 가을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감정과 정서가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시간에 느껴지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제 3, 4구는 長安에서의 삶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奉禮郎이란 말직으로 있으면서 겪는 슬픔과 고통이 바로 '羈恨'이란 단어에 응축되어 있다. 굴레에 묶여 타향을 떠돌 수밖에 없는 우울과 분노, 바로 '羈恨'이다. 시인의 생애와 관련시켜 보면 '羈'는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시인의 최대의 타격인 避諱로 인한 과거 응시 불가, 그로 인한 벼슬길에의 좌절, 가까스로 갖게 된 奉禮郎이란 미관말직, 병약한 신체, 심지어 王孫이라는 자부심도 시인 자신에게는 큰 굴레가 되어 모든 행동에 제약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제 5, 6, 7, 8 구는 비오는 날의 풍경과 자신의 가난하고 무료한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여윈 말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며, 그 말이 먹는 풀도 시든 풀이다. 가을날 허망하게 내리는 차가운 빗방울 같은 자신의 신세, 그마저도 흩어져 도랑에 뿌려지는 신세이다. 마지막 네 구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잠에 드는데, 버리지 못한 입신양명의 꿈은 말 그대로 꿈에서밖에 이를 수가 없다. 李賀에서 시인의 곤궁한 생활과 처해있는 환경의 어려움이 표현된다. 그러나 아직 버리지 못한 시인의 꿈을 꿈에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안타까움과 분투가 동시에 느껴지는 시이다. 그리고 그 회재불우의 아픔은 가을이라 倍加된다. 한여름의 소나기는 차라리 시원함이라도 있지만, 쓸쓸하고 냉랭한 가을날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는 여름날의 소나기와는 다른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이다.

7) 王友勝·李德輝 校註, 前掲書 218쪽.

## 2. 가을과 전쟁

가을은 본질적으로 전쟁과 관계있는 계절이다. 고대 黃河 유역에서 농경생활을 하던 漢族에게 있어서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추수감사의 제천행사를 올리는 풍요로움의 계절이었다. 그러나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던 주변의 사방 유목민족에게 가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절박한 계절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생사를 걸고서라도 끊임없이 농경민족의 수확을 넘보아야 했다.<sup>8)</sup> 그리하여 풍요의 계절,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禮記·月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리며, 쓰르라미가 울고 새매는 작은 새를 잡아祭를 지낸다. 刑戮이 시작된 것이다. …… 有司에게 명하여 법제를 수정하고 형옥을 결정하게 하는데 반드시 공정하도록 해야 한다. …… 천자는 친히 三公, 九卿, 諸侯, 大夫를 인솔하고 서쪽 교외로 가서 가을을 맞는다. 돌아와 조정에서 軍師와 武官들을 포상한다. …… 천지에 肅殺이 시작된 것으로 태만하여서는 안 된다.(涼風至, 白露降, 寒蟬鳴, 鷹乃祭鳥, 用始行戮……命有司修法制決獄訟必端平……天子親帥三公九卿諸侯大夫以迎秋於西郊, 還反賞軍師武人於朝……天地始肅不可以羸)<sup>9)</sup>

위에서 볼 수 있는 가을은 대체로 ‘秋霜같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예리하며 엄숙하고 두려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 등장하고 있는 景物도 모두 황량함과 긴장감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刑戮을 시작하고 법제를 살피며 옥사를 다스린다. 그리고 장수와 무관들을 포상한다. 전쟁에 열심히 임할 것을 격려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 천지에는 肅殺의 기운이 가득 차있으니 결코 태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五行思想의 가을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즉 오행사상에 의하면 가을은 金에 해당하는데, 金의 최초이자 최고의 효용은 바로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고, 무기는 바로 살상과 전쟁을 의미했기에 고대에는 전쟁과 관련되는 일은 거의 가을에 이루어졌던 것

8) 권명숙, <중국 고전시가 속 悲秋 감성의 사회화 과정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2013년 8월, 24쪽.

9) 《禮記》(姜義華 註釋, 三民書局, 臺北, 2010) 261-262쪽.



이다.<sup>10)</sup> 우리가 가을을 말할 때 수식으로 쓰는 ‘天高馬肥’란 말은 바로 전쟁과 관계있는 말로서, 결코 낭만적인 단어가 아닌 것이다. 다음의 시는 전쟁을 묘사한 이하 시의 걸작의 하나이다. 물론 그 시기적 배경은 가을이다.

017〈雁門太守行〉	안문 태수의 노래
01黑雲壓城城欲摧	검은 구름이 성을 눌러 성이 무너지려 하고
02甲光向月金鱗開	달 향한 갑옷의 광채는 금빛 비늘처럼 번득인다
03角聲滿天秋色裏	뿔 나팔소리는 가을 하늘에 가득하고
04塞上燕脂凝夜紫	변세 위 연지 빛 여명은 밤에는 자색 빛깔
05半捲紅旗臨易水	반쯤 말린 붉은 깃발 易水에 이르렀지만
06霜重鼓寒聲不起	된서리에 복은 얼어 소리조차 나지 않는다
07報君黃金臺上意	황금대 위 성상께 보답하려면
08提攜玉龍爲君死	옥룡갈 치켜들고 성상 위해 죽어야하리

이 시는 작자가 19세 때인 憲宗 元和 3년(808년) 늦가을 洛陽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목 ‘雁門太守行’은 樂府 舊題 《相和歌》 瑟調 38曲 중의 하나이다. 古辭는 洛陽令인 王渙의 선정을 찬미한 것으로 雁門의 太守에 대한 언급은 없다. 梁의 簡文帝가 처음으로 이 제목을 빌어 변방의 전쟁을 노래하였다.<sup>11)</sup> ‘雁門’은 郡의 명칭으로 지금의 山西省 北部가 그 관할지이다.

李賀가 살았던 시기는 藩鎮이 발호하여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때이다. 이 시 역시 藩鎮과의 전쟁을 묘사한 시이다. 첫 구의 ‘黑雲’은 적의 침입이나 반란으로 인한 전쟁을 암시한다. ‘黑雲’이 軍營 위에 떠있다는 것은 그 군대가 패할 징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 2구의 ‘甲光’은 금빛 갑옷을 입은 唐나라 관군 혹은 대장군을 가리키기도 한다.<sup>12)</sup> 제 3구의 ‘角聲’은 군대가 출정할 때 울리는 신호이다. 제 4구의 ‘燕脂’는 전투에서 흘린 핏방울이나 핏자국이라기보다는, 군대가 출정할 때의 黎明이 마치 여인이 눈물을 흘려 燕脂가 밤새 굳어 자줏빛으로 빛난다고 묘

10) 권명숙, 前掲論文 19쪽.

11) 王友勝·李德輝 校註, 前掲書 26쪽.

12) ‘向月’은 많은 판본에서 ‘向日’로 되어있으나, 詩想의 전개나 판본에 있어서 ‘向月’로 되어야 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장강순, 〈李賀 〈雁門太守行〉 詩 注釋 및 史實 반영에 대한 의미 고찰〉, 《中國文學》 제59집(2009년, 한국중국어문학회), 99쪽.

사한 것으로 본다. 즉 제 3, 4구는 성안에 있던 군대가 낙엽 지며 풀 마른 가을 풍경 속에 빨 나팔 가득 울리며 출정하는데, 그 출정하고 있는 邊塞의 黎明이, 마치 여인이 밤새 울어 눈물에 젖어 빨간 연지가 굳어 자줏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제 5구의 '紅旗'란 관군의 깃발이다. '易水'는 荊軻가 秦始皇을 시해하여 군주의 은혜에 보답하려하다가 목숨을 잃는 비장한 장소이다. 그러나 반란군 평정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절도사의 군대나 관군의 최고 사령관 吐突承璀는 제 6구에서처럼 북소리가 일지 않듯이 군대의 위용을 떨치지 못하고 전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제 7구의 '黃金臺'는 戰國時代 燕의 昭王이 高臺를 지어 그 위에 황금을 쌓아놓고 인재를 招致했다는 곳이다. 제 7, 8구는 그럴 바에는 마땅히 병란이 일어나면 龍과 같이 운다는 보검을 치켜세우고 죽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이 시는 단순하게 征戰에 참가하여 군주나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겠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변진의 반란으로 이를 평정하기 위한 군대를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당시의 무능력한 장수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낫다고 본다.<sup>13)</sup>

한편 이 시가 높이 평가받은 또 다른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색채감에 있다. 일반적으로 비장하고 치열한 전쟁 장면이 이렇게 농염한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는 선명한 색채로 가득하다. 금색, 연지색과 홍색, 자색 등은 선명하다 못해 농염하기까지 하다. 그런 색과 흑색, 추색, 옥색 등이 합쳐져서 현란한 장면을 보여준다. 심지어 상호 모순되는 사물을 함께 뒤섞어서 강렬한 대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성을 누르는 흑운은 적군의 맹렬한 기세를 암시하고, 갑옷의 번뜩이는 빛은 성을 지키는 장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특히 흑색과 금색의 색채의 대비는 너무나 선명하다. 이 시는 맹렬한 전쟁 장면에서도 이렇게 농염하고 선명한 색채를 사용해도 성공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색채를 사용한 이러한 현란하고 기이한 장면은 오히려 특정의 시간과 공간 즉 변세의 풍광과 순식간에 변환하는 전쟁의 풍운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13) 장강순, 上揭 論文 131쪽, 以上 시에 대한 해설은 장강순의 上揭 論文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14) 강창수, 〈李賀 詩 色彩 이미지 研究 序說〉《중국어학연구》 제44집(2011년, 한국중문

203〈塞下曲〉	변방에서
01胡角引北風	오랑캐 뿔피리 소리는 삭풍을 이끄는데
02薊門白於水	계문 땅은 물보다 하얗게 펼쳐졌다
03天含青海道	하늘은 청해가는 길을 품고 있고
04城頭月千里	성 위에 걸린 달빛 천리를 비춘다
05露下旗蒙蒙	이슬 내려 깃발은 축축하고
06寒金鳴夜刻	차가운 구리 막대 밤 시간 알리며 운다
07蕃甲鑱蛇鱗	오랑캐의 갑옷은 사슬에 묶인 뱀 비늘처럼 빛나고
08馬嘶青塚白	말은 푸른 무덤가 풀을 다 먹어버리고 운다
09秋靜見旄頭	고요한 가을 하늘에 昴星이 보이면
10沙遠席箕愁	먼 사막 석기 갈대풀 시들어 시름에 겹다
11帳北天應盡	군대 장막 이북은 하늘마저 다한 곳
12河聲出塞流	황하의 물소리 변방을 나와 흐른다

이 시는 작자가 25세 때인 憲宗 元和 9년(814년) 潞州에서 張徹의 幕僚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塞下曲〉은 唐代 樂府의 새로운 歌辭로 漢魏 樂府 橫吹曲 〈出塞曲〉·〈入塞曲〉에서 나왔는데, 《樂府詩集》에는 〈樂府雜題〉에 실려 있다.

첫 구는 삭풍의 계절에 전해오는 오랑캐의 침입을 의미한다. 가을, 바로 천고마비의 계절은 오랑캐가 침입하는 시기인 것이다. 제 2구 ‘薊門’은 지금의 河北省 薊縣에 해당하는데, 다음 구의 ‘青海’, 제 8구의 ‘青塚’ 등과는 萬리나 떨어져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시인은 넓은 의미에서의 邊塞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白於水’는 광야에 부는 바람으로 모래가 일어 천지를 허옇게 덮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제 3구의 ‘青海’는 지금의 青海省 중부 지역으로, 당시에는 吐谷渾이 점령하였고 후에 吐蕃으로 귀속된 곳이다. 여기서는 ‘青海가는 길’이라고 하여, 서북의 변방으로 가는 모든 길을 통칭한 것이다. 제 5구의 ‘蒙蒙’은 군대의 깃발이 안개와 이슬에 젖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제 6구의 ‘寒金’은 군중에서 야경을 위하여 두드리는 구리막대기를 말한다. 병사들은 야간에 경비를 서며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제 7, 8구는 오랑캐의 흉포한 모습과 牧馬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青塚’은 푸른 무덤이란 뜻으로 궁녀였다가 흉노의 왕비로 간 王昭君의 무덤을 말

하는데, 무덤 위의 풀이 주위와는 달리 항상 푸르게 자라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sup>15)</sup> 제 9구의 '旄頭'는 '昴星'을 말한다. 묘성은 28宿의 열여덟째 별 자리의 하나로, 《史記·天官書》에서는 胡星이라고 한다. 즉 가을이 되면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자리를 보며 오랑캐의 동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제 10구의 '席箕'는 일명 '塞蘆'로 북방 지역에서 자라는 갈대의 일종이다. '席箕愁'는 갈대 풀인 席箕가 다 시들어버려, 긴긴 겨울을 보낼 일을 오랑캐들이 걱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오랑캐는 생존을 위하여 침입을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 두 구는 唐나라 군사가 주둔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아득한 변방의 쓸쓸한 모습을 형용하고 있다.

이 시는 시인이 변방을 지키는 병사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의 고통을 객관적인 필치로 묘사한 것이다.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는 藩鎮의 발호가 극심하여, 젊은이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수 천리나 떨어진 변방으로 가서 추위와 죽음과 싸워야 했다. 시인은 이러한 병사들의 고통을 담담하고 객관적인 필치로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부각시키고 있는 동시에 당시 변진의 폐해로 인한 혼란한 현실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현실인식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sup>16)</sup>

115〈送秦光祿北征〉	진광록의 북방 원정을 전송하며
01北虜膠堪折	북쪽 오랑캐 침략의 때가 되니
02秋沙亂曉聲	가을 모래 새벽 북소리에 어지러이 날린다
03髡胡頻犯塞	수염 덩수룩한 오랑캐 변방을 자주 침범하는데
04驕氣似橫霓	교만한 기세가 하늘을 가로지른 무지개 같다
05灞水樓船渡	파수를 전함 타고 건너가
06營門細柳開	군영을 세류 땅에 설치했다
07將軍馳白馬	장군은 백마 타고 달려가고
08豪彥騁雄材	호방한 선비는 용감한 인재를 모셔온다
09箭射櫓檣落	화살 쏘아 혜성을 떨어뜨리고
10旗懸日月低	깃발 드높이니 해와 달도 낮다
-下略-	

15) 葉葱奇, 前揭書, 165쪽.

16) 宋幸根, 〈李賀詩 研究〉(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1996년 2월) 239쪽.

이 시는 작자가 22세 때인 憲宗 元和 6년(811년)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秦光祿'은 秦씨 성을 가진 光祿寺의 관원이다. 이름은 미상. '北征'은 북쪽으로 출정함을 말한다. 당시 광록사의 관원들은 주로 북방의 振武軍府로 갔다고 한다. 장안의 친구들은 그들을 위하여 환송연을 베풀었고, 李賀 역시 당시 장안에서 奉禮郎 벼슬을 하고 있었기에, 그들과 왕래가 있어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구의 '北虜'는 구체적으로는 元和 연간에 여러 차례 중원을 침입한 關中 지역의 回紇, 吐蕃 등을 가리킨다. '膠壤折'는 직역하면 '阿膠를 꺾을 수 있게 되다'는 말이다. 가을이 되면 건조한 날씨로 아교가 굳어져서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활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오랑캐는 중원으로 침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 2구의 '鬣'는 말을 타고 칠 수 있는 작은 북을 말한다. 즉 가을이 되어 날씨가 건조해지는 등 중원으로 침입할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제 3, 4구는 흉노의 침략을 표현하였다. '髯胡'는 '수염 덩수룩한 오랑캐'를 말한다. 그들은 중원의 漢族과는 생김새가 달라 얼굴에 수염이 많다고 한다. 그러한 오랑캐의 모습은 한족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교만하게조차 느낄 수 있는 기세는 하늘을 찔렀는데, 그것을 '橫霓' 즉 '하늘을 가로지른 무지개'로 표현한 것이다. 전쟁과 침입하는 오랑캐의 기세에서조차 아름다운 시어를 고르고자 힘쓴 시인의 고뇌가 엿보인다. 제 5, 6 구에서는 그렇게 침입해 오는 오랑캐에 대항하는 우리 편의 대응을 노래했다. '灞水'는 陝西省에서 발원하여 渭水로 흘러 들어가는 강줄기이다. '樓船'은 누각을 지어 각종 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로, 주로 전쟁에 쓰이는 큰 배를 일컫는다. '樓船'이 출동했다는 것은 왕의 군대가 출병하였음을 의미한다. 한족의 대대적인 군사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細柳'는 장안의 서북쪽, 渭水의 北岸 지역을 말한다. 5, 6 두 구에서는 왕의 군대가 오랑캐의 침입으로 출병하였으며, 그 위용이 성대함을 노래하고 있다. 제 7, 8구는 장군과 그 막료들의 활약상을 표현한 것이다. 제 9, 10 구에서는 전쟁하는 병사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櫓槍'은 혜성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살별'이라고도 하는데, 긴 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란·역병·천재지변 등의 흉조를 예고하는 것이다.<sup>17)</sup> 여기서는 오랑캐의 침입을 비유하고 있다. 강궁으로 오랑캐를 무찌르고, 승리의 깃발을 해와 달보다 높이 치켜든다.

17) 유병례 지음, 《당시30수》(도서출판 아이필드, 경기 고양, 2003년 8월), 15쪽.

이상으로 李賀의 시 중에서 가을날의 전쟁과 관련된 시를 살펴보았다. 〈雁門太守行〉은 이전에는 雁門 태수의 영웅적인 모습을 노래한 시로 보았으나, 그 보다는 전쟁은 게을리 하고 戰況만을 살펴며 눈치나 보는 절도사나 관군, 그리고 그들을 통솔하며 아무런 전공도 세우지 못하고 돌아온 환관 吐突承璀를 질책한 시라는 견해<sup>18)</sup>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전쟁 과정에서 그러한 행태를 보인 장군들에 대해서는 많은 시들에서도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인 변새시인의 한 사람인 高適은 〈燕歌行〉에서 ‘군사는 군진 앞에서 반이나 죽어 가는데, 미인은 장군의 군막 안에서 오히려 노래하고 춤춘다(戰士軍前半死生, 美人帳下猶歌舞)’라고 장군들의 부패상을 노래하고 있다.<sup>19)</sup> 李賀의 시 〈呂將軍歌〉도 북방의 藩鎮이 발호할 때, 용감한 장군들은 모두 감옥에 가두고, 宦官인 呂將軍을 보내어 대군을 통솔하게 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塞下曲〉이나 〈送秦光祿北征〉 역시 대표적 변새 시인의 한 사람인 岑參의 〈奉送封大夫出師西征〉이나 〈走馬川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변새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李賀의 경우 그 수가 위에서 언급한 시 이외에 〈平城下〉, 〈摩多樓子〉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쉽다.

### 3. 가을날의 음악

중국에서 시란 노래다. 우리가 눈으로 읽는 시가 아니라 곡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인 것이다. 거대한 땅덩어리로 인하여 중국의 기후는 남북의 차가 크다. 기후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데, 음악 또한 그 차이가 무엇보다 뚜렷하다. 즉 북방의 음악에서 사용되는 악기와 남쪽의 음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18) 장강순, 前揭論文, 125쪽.

19) 高適은 〈燕歌行〉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원 26년, 어사대부 장공을 따라 변방으로 갔다가 돌아온 자가 있었는데, 연가행을 지어 나 고적에게 보여주었다. 변방의 전쟁에 관하여 느낀 바가 있어, 화답한다(開元二十六年(738), 客有從御史大夫張公出塞而還者, 作燕歌行以示適, 感征戍之事, 因而和焉)」張公은 營州都督·河北節度副大使 張守珪를 가리킨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장수규는 契丹과의 전쟁에서 누차 승리를 거두었으나, 나중에 그의 部將들이 奚族과의 戰爭에서는 敗하였다. 그는 패배를 은폐하고 이겼다고 거짓보고를 하였다. 작자 고적은 이 시를 빌어 그의 거짓을 폭로한 것이다. 작자는 이 시에서 전쟁의 실상을 반영하면서 장군들의 부패상을 풍자하고 전사들의 변방에서의 오랜 고통을 노래했다.

그 음악의 차이만큼 악기 종류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쿵쿵 울려야하는 북이나, 현이 탕탕해야 만이 소리가 청아한 현악기는 습한 남방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시는 음악을 노래한 李賀 시 수작의 하나로 평가받는 시로, 그 계절적 배경이 가을인 대표적인 시이다.

001〈李憑箏篋引〉	이빙의 공후 소리
01吳絲蜀桐張高秋	거문고 타는 깊은 가을 저녁
02空山凝雲頽不流	빈산엔 구름 모여 잔뜩 찌푸렸다
03湘娥啼竹素女愁	상아의 눈물 대를 적셔 소녀는 슬픈데
04李憑中國彈箏篋	이빙이 장안에서 공후를 타는구나
05崑山玉碎鳳凰叫	곤산옥 부서지듯 봉황이 울음 우듯
06芙蓉泣露香蘭笑	부용이 울음 우듯 향난이 웃는 듯
07十二門前融冷光	열두문 앞에는 차가운 빛 녹여들고
08二十三絲動紫皇	스물 세줄 현은 자황을 감동시킨다
09女媧煉石補梯處	여왜가 돌 갈아 하늘을 메꾸었는데
10石破天驚逗秋雨	돌 깨어지고 하늘 놀라 가을 비 걸려있다
11夢入神山教神嫗	꿈에서 신산에 가 신구를 가르치니
12老魚跳波瘦蛟舞	노어가 파랑에 뛰고 마른 교룡도 춤춘다
13吳質不眠倚桂樹	오질은 잠 못 이루어 계수에 기대었는데
14露脚斜飛濕寒兔	이슬 뿌려져 달님을 적신다

이 시는 작자가 23세 때인 憲宗 元和 7년(812년)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李憑'은 당 憲宗 시기 활약했던 유명한 궁정악사로 盛唐 시기의 李龜年과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음악가로 전해진다. '箏篋'는 궁정에서 아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다가 점차 민간으로 퍼져 광범위하게 사용된 현악기의 일종이다. '引'은 '歌'나 '行'과 마찬가지로 노래라는 뜻이다.

첫 구의 '吳絲蜀桐'은 공후 재질의 뛰어난을 말하지만 동시에 연주자의 예술적 기량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어 뛰어난 음악가가 연주하는 노래의 시기적 배경인 가을을 '高秋'라고 설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말하는 '深秋'나 '暮秋'에 비해서 그 함축성이 더욱 풍부하다. 제 2구와 3구는 음악의 소리를 묘사한 것이다. 시인은 잡을 수 없는 소리를 객체인 빈산과 구름 따위를 통하여 표현한다. 아름다운 공후의 소리는 거문고의 대가인 상아와 소녀마저 감동시켜 눈

물을 흘리게 만든다. 이어 제 4구에서는 연주자의 이름과 연주하는 장소를 밝히고 있다. 이상 네 구는 거문고, 소리, 그리고 연주자의 이름을 차례로 드러내면서 서막을 여는, 시인의 예술적 역량을 보여준다.

제 5구와 6구는 소리를 정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 5구는 소리로써 소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소리의 기복과 변화에 중점으로 두고 있다. 제 6구는 형태로써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음악의 감염력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이슬을 머금은 부용이 운다함은 거문고 소리의 슬픔을, 향난이 웃는다함은 소리의 즐거움을 말한 것으로, 청각과 시각의 공감각적 결합을 절묘하게 묘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 7구부터 마지막 구까지는 소리의 효과를 묘사한 것이다. 사실 차가운 빛은 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후 소리의 아름다움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紫皇'은 雙關語로 천제와 황제를 겸칭한다. 시인은 '황제'나 '군왕'으로 하지 않고 '자황'이란 말을 씌으로써 조구상의 기이함을 추구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묘한 과도적 기법을 채용하여 시적 의경을 인간계로부터 천계로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전개되는 것은 바로 천계에서의 소리의 전파를 노래한다. 음악의 예술적 효과와 그에 따른 감염력을 다양한 형상의 출현을 통하여 독자의 눈앞에 펼쳐내고 있다.

다음 시 역시 가을날의 음악을 노래한 시이다.

240〈聽穎師彈琴歌〉	영사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01別浦雲歸桂花渚	은하수에 얽힌 구름 달님에게로 돌아가는데
02蜀國弦中雙鳳語	촉나라 거문고 소리는 봉황 한 쌍이 속삭이듯 한다
03芙蓉葉落秋鸞離	부용 꽃잎 떨어지듯 가을 난새 떠나 가듯 처량하고
04越王夜起遊天姥	월왕 밤에 일어나 천모산에 가듯 높은 소리
05暗佩清臣敲水玉	옷 속에 패옥 찬 청렴한 신하가 수정을 두드리듯 맑고
06渡海蛾眉牽白鹿	바다 건너온 고운 선녀가 흰 사슴을 끄는 듯 아득하다
07誰看挾劍赴長橋	주처가 긴 다리에서 교룡을 죽이듯 노하고
08誰看浸髮題春竹	장욱이 머리칼에 먹물 적서 춘죽의 노래 쓰듯 종횡무진
09竺僧前立當吾門	서역 승려 내 집 대문에 서 있는데
10梵宮眞相眉稜尊	범천의 나한 눈썹이 불룩한 모습 산봉우리처럼 우뚝
11古琴大軫長八尺	큰 기러기발 달린 옛 거문고는 길이가 여덟 자
12嶧陽老樹非桐孫	역양산 늙은 나무로 만든 것이지 오동나무 아니다



13涼館聞絃驚病客	싸늘한 여관에서 거문고 소리 들으니 병든 나그네 놀라
14藥囊暫別龍鬚席	약주머니 잠시 용수초 방석에 떼어 놓는다
15請歌直請卿相歌	노래 청하면 다만 경상의 노래일 뿐이니
16奉禮官卑復何益	봉례랑 낮은 벼슬아치라 또 무슨 도움이 되리오

이 시는 작자가 23세 때인 憲宗 元和 7년(812년)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穎師'는 친척에서 온 승려로, 거문고 연주에 뛰어났는데, 당시 長安의 公卿大夫 집을 돌며 거문고를 연주했다고 한다. 韓愈에게도 같은 제목의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상당히 인기 있는 연주가였던 모양이다.

첫 구 '別浦'는 은하수를 말한다. '桂花渚'는 '계수나무 꽃이 피어있는 물가'로 여기서는 달을 말한다. 제 2구의 '蜀國絃'은 거문고, 여기서는 거문고 소리를 말한다. 당대에는 거문고의 재질로 蜀 지역에서 난 것을 최고로 쳤다고 한다. '雙鳳語'는 '봉황 한 쌍이 속삭이다'는 말로, 거문고 소리를 묘사한 것이다. 제 3구에서 8구까지 여섯 구는 전부 거문고 소리를 형용한 것으로, 시인은 아름다운 단어들로 그 소리를 묘사한다. 부용 꽃잎이 떨어지고 가을 난새가 등지를 떠나가듯 그 소리가 맑고 처량하다. 제 4구의 '天姥'는 天姥山으로 지금의 浙江省 嵊縣과 新昌縣에 걸쳐 있는 산이다. '夜遊天姥'는 거문고 소리가 높고 큰 것을 묘사한 것이다. 제 5구 '暗佩'는 고대 관원들의 복장 모습이다. 껍옥을 달 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별도의 腰帶에다 보이지 않게 단 모습이다. 여기서는 드러내지 않고 그윽하게 감춘 듯 여운 있고 맑은 거문고 소리를 형용한 것이다. '水玉'은 수정을 말한다. 제 6구의 '蛾眉'는 고운 눈썹을 가진 선녀를 말한다. 제 7구와 8구는 각각 周處와 張旭의 고사를 빌어 거문고 소리를 형용한 것이다. '칼을 끼고 長橋로 간 사람'은 주처를 말한다. 《世說新語·自新第十五》에 따르면, 주처는 西晉 시대 인물로 마을의 골칫거리였는데 蛟룡을 죽이고 나쁜 버릇을 고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長橋'는 긴 다리로 주처가 蛟룡을 죽인 곳이다. 《宣和書譜》에 따르면, 張旭이란 사람이 술에 취해 머리카락에 먹칠을 찍어 글씨를 썼는데, 술이 깨어보니 신기에 가까운 글씨였지만, 다시는 그런 글씨를 못 썼다고 한다.<sup>20)</sup> 시인은 이 두 개의 고사를 빌어 거문고 소리의 중횡무진하고 자연스러움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9구 '竺僧'

20) 홍상훈, 前掲書, 386쪽.

은 西域에서 온 승려로 여기서는 거문고 연주자 '穎師'를 말한다. 제 10구 '梵宮眞相'은 연주자인 竺僧 즉 穎師의 외모를 말한 것이다. '稜尊'은 산봉우리처럼 우뚝하게 튀어나온 모양을 말한다. 두 구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穎師의 모습을 형용한 것인데,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영사가 거문고를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11, 12구는 거문고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大軫'은 거문고나 가야금 등의 악기의 줄을 떠받치는 받침대로 우리말로는 기러기발이라고 한다. '釋陽'은 '역양산'으로 그 곳 나무로 만든 거문고는 최고의 품질로 친다고 한다. 제 13구에서 16구, 네 구는 시인 자신에 대한 언급이다. '涼館'은 작가가 머물고 있는 곳이다. '약주머니'가 언급된 걸 보면 이때에도 시인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두 구는 낮은 벼슬의 자신을 낮추는 겸사이지만, 불만과 분노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초반에는 거문고가 연주되는 가을날의 모습을 노래하고, 이어 변화무쌍한 거문고 소리를 아름다운 시어들과 고사들을 인용하며 묘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주자의 모습과 그에 대비되는 자신의 우수를 노래한 수작이다.

### Ⅲ. 結語

가을의 모습은 참으로 여러 가지이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수확과 결실의 이미지이다. 넓은 들에 누렇게 익은 벼의 넘실대는 물결은 또한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을은 한편으로는 쇠락과 슬픔 그리고 고독, 나아가 고통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렇듯 사람마다 가을을 대하는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을의 느낌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민감하고 뛰어난 감정이나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이미지가 그 시에 무엇보다 뚜렷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李賀의 시에 나타나는 가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미지를 懷才不遇, 戰爭, 音樂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물론 가을의 이미지는 그 셋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李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神怪詩는 귀신, 여

인, 죽음 등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점은 훗날 고를 달리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회재불우 또한 중국의 대부분 시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보편적 주제의 하나로, 李賀의 독창적인 전유물은 아니다. 그러나 李賀의 생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 또 실제비평을 통하여 살펴 본 그의 시들은 회재불우로 인한 슬픔과 고통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李賀의 전쟁에 관한 시는 다섯 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을이었다. 가을은 전쟁의 계절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 시들은 변새시의 대표적 시인이라 일컬어지는 高適이나 岑參의 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음악에 관한 시 역시 몇 수 되지 않지만 가을날의 음악이 그 날씨와의 상관성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가을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었다.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가을의 이미지는 훗날 고를 달리해 살펴보고자 한다.

### 【參考文獻】

- 姜義華 註釋《禮記》，三民書局，台北，2010.
- 杜牧〈李長吉歌詩敘〉：《李賀詩集》，里仁書局，台北，民國 71.
- 李商隱〈李長吉小傳〉：《李賀詩集》，里仁書局，台北，民國 71.
- 王琦《李長吉歌詩彙解》，世界書局，台北，民國 71.
- 葉葱奇《李賀詩集》，里仁書局，台北，民國 71.
- 王友勝·李德輝 校註《李賀集》，嶽麓書社，中國 長沙，2003.
- 朱子清〈李賀年譜〉：清華學報，1933.
- 楊文雄《李賀詩研究》，文史哲出版社，台北，民國 69.
- 馬楊萬運《李長吉研究》，臺灣大學中文研究所碩士論文，台北，民國 58年.
- 李正治《李賀詩裏的時間意識》：《中華文化復興月刊》第10卷 4期. 台北，民國 66.
- 方瑜〈李賀歌詩的意象與造境〉：《中晚唐三家詩析論》，牧童出版社，台北，民國 68.
- 홍상훈《시귀의 노래》，서울, 명문당, 2007.
- 유병례 지음《당시30수》，도서출판 아이필드, 경기, 2003년 8월.
- 권명숙〈중국 고전시가 속 悲秋 감성의 사회화 과정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2013년 8월.
- 宋幸根〈李賀詩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1996년 2월.

장강순 〈李賀 〈雁門太守行〉詩 注釋 및 史實 반영에 대한 의미 고찰〉: 《中國文學》 제 59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9년.

강창수 〈李賀 詩 色彩 이미지 研究 序說〉: 《중국문학연구》 제44집, 한국중문학회, 2011.

윌프리드 케린 외 공저, 정재완 역 《문학의 이해와 비평》, 청록출판사, 서울, 1984.

R.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서울, 1987.

### 【中文提要】

秋天的确是有很多不同的意象。最先浮現出的是收獲和果實的意象。在寬廣的田野上黃熟的稻子所蕩漾出的波紋也是富饒的象征。但是另一方面秋天又是衰弱·悲傷·孤獨并且痛苦的季節。因而不可避免的每个人對秋天的感受都不同。即使同一个人隨着自身所處狀況的不同,對秋天的感受也是不一樣的。尤其是詩人,他們具有比一般人更爲敏感和出色的感情或者感受性,在他們的詩歌里,會更爲清晰地呈現出對秋天的感受或意象。

本文研究了李賀詩歌里出現的秋天。并且以怀才不遇·戰爭和音樂爲主題進行了分類研究。当然秋天的意象不僅僅限于這三類。比如算得上李賀代表作的神聖詩就具有鬼魂·女人·死亡等各种各樣的意象。這些意象今后將在其它的論文中涉及。怀才不遇也是中國大部分詩人都表達的普遍的主題之一,并非李賀獨創的專利。但是通過李賀的一生或者通過評論分析的李賀的詩,表達了因怀才不遇而產生的悲傷和痛苦的極致。李賀關於戰爭的詩只有五首。但是從與戰爭相關的詩里能够看出的共同主題是秋天。秋天似乎曾是戰爭的季節。此外這些詩與邊塞詩的代表詩人高适和岑參的詩相比也毫不遜色。雖然關於音樂的詩只有几首,但是不僅在秋天音樂和天气的相關性上,而且在內容上都把秋天的意象做了最好的表達。更爲多彩并且有意義的秋天意象,將在今後的論文里進行研究。

【主題語】

이하, 이미지, 가을, 회재불우, 전쟁, 음악

李賀, 意象, 秋天, 懷才不遇, 戰爭, 音樂

Lihe, Image, Autumn, Be frustrated for all one's talent, War, Music

투고일: 2016. 10. 15 / 심사일: 2016. 10. 25 ~ 11. 10 / 게재확정일: 2016. 11. 15

